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학'

쌍학홍배와 이중섭의 그림 '부부'

백학(白鶴)은 한국의 전설 속에서 봉황과 함께 이름 높은 새인데, 천년을 장수한다는 십장생의 상징 중의 하나이다. 두루미라고 불리기도 하며, 선학(仙鶴)·선금(仙禽)·노금(露禽)·태금(胎禽)·단정학(丹頂鶴) 등으로도 불린다.

학은 흑색(黑) 황색(黃) 백색(白) 청색(靑)의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검은 학은 600살이 되면, 물만 마시고 산다는 전설이 있는데, 청아함을 나타내는 새로서 군자를 함께 의미하는 백학을 따라갈 수 있는 새는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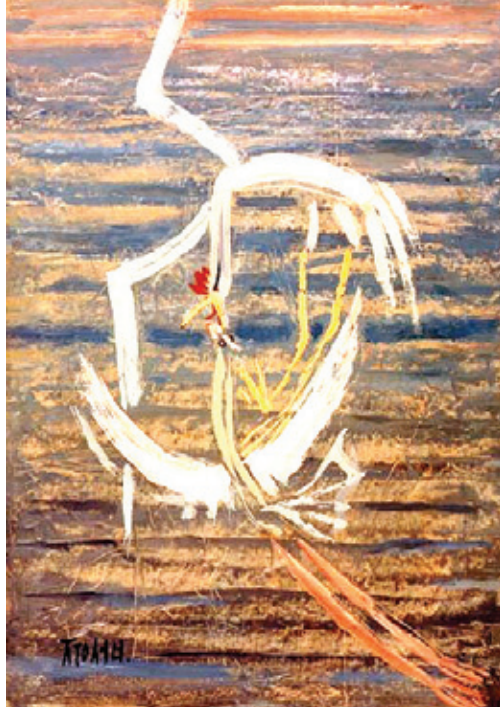
일제시대에 남아있던 사진에서, 충청도 산골의 어느 민가에 높은 나무 위에 동지를 짓고 우아하게 서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제는 학의 수가 급격히 줄어서 1968년 당시 종(種) 자체를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몸길이가 무려 140센티에 달하고, 긴 다리로 서있는 것을 몇 년 전에 일산호수공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학을 보았는데, 머리는 붉은 피부가 드러나 있다.

불로초(不老草)는 영지(靈芝)버섯처럼 생겼는데, 고대 중국의 전설에서는 곤륜산(崑崙山) 아래에서 흐르는 붉은 유수(流水)와 옥(玉)으로 된 괴석 사이에서 자라는 불로초를 신초(神草)라 부르며 덕이 있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영지초가 자라난다고 한다.

쌍학과 불로초는 사실 관복의 가슴과 등에 덧대는 수놓인 천인 쌍학홍배(雙鶴胸背)에 나오는 디자인인데, 본래 당상관(堂上官)이 착용하던 것이다. 열은 청색의 비단바탕에 위쪽에는 구름을,



쌍학홍배



이중섭의 '부부'

백학은 봉황과 함께 전설 속의 새 십장생의 하나로 두루미로도 불려

가운데는 날개를 활짝 편 쌍학이 불로초를 입에 물고 마주보는 모양을, 아래쪽 중심부에는 철보 무늬를, 좌우에는 물결무늬를 수놓는다.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로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당(堂)위에 올라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하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는 관리리를 당상관이라 부르는데, 서자나 중인으로 당상관에 오른 사람은 동의보감 편찬을 주도한 어의(御醫) 허준(許浚)이나 33인 가운데 한 분으로 독립운동가이며, 한국 최고의 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의 산파역을 하신 위장 오세창(叢滄 吳世昌)의 부친인 역대 오경석(亦梅 吳慶錫) 정도이다.

대향(大鄕) 이중섭(李仲燮: 1916~1956)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화가이다. 그의 작품 <부부>(1953)는 대다수의 평민가가 청색 날개의

수탉과 홍색 날개의 암탉이 감격적인 재회(再會)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다.

사실 이중섭은 서화 골동품 매우 좋아해서,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 영향을 받아 천도복숭아를 그렸다고 한다. 이 '부부'라는 작품을 보면, 홍배의 쌍학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붉고 푸른 배경은 붉고 푸른 홍배의 구름과 일치하고, 새의 긴 다리는 학의 긴 다리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새의 머리에 붉은 벼슬은 사실, 불로초나 단정학의 붉은 피부와 일치한다. 대향의 이 그림은 우리가 아는 켄터키 치킨이 아니라 사실 백학인 것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달빛

까맣던 세상에 달빛이 드리운다. 보고왔던 그대의 모습이 그대의 미소가

달빛아래 서있다. 꽃들이 콧노래를 흥얼대며 너와 나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사(尙書) 조선 무용수연 선사의 '옛 술(古酒)'

몸을 놓아 불구덩이에 앉았네

鼎乎那劫鼎 (정호나점정) 體用甚分明 (체용심분명) 仰口承天氣 (양구승천기) 放手坐火坑 (방신좌화갱) 煮出無生飯 (자출무생반) 烹成不瀟羹 (팽성불습갱) 滿腸禪悅味 (만장선열미) 日爲衲僧傾 (일위납승경)

술이여 어느 겹의 술인가 체용이 매우 분명하구나. 입을 벌려 천기를 받아들이고 몸을 놓아 불구덩이에 앉았네. 생것 없는 밥을 쑤어내고 날것 없는 국 끓여내네 배에 선열미가 가득하여 날마다 스님들 위해 기울이네.

무경자수(無竟子秀: 1664-1737) 스님이 술을 의인화하여 불법을 그려낸 작품이다. 나갑(那劫)의 술이란 몇 생이나 생사에 헤매고 있는지 모를 나를 견주었고, 체용이 분명하다 함은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

음을 전제했다. 천기를 받아들이면서 불구덩이에 앉아 있다는 묘사는 저 문수보살이 말한 "마치 청정한 땅에서는 연꽃이 나지 않고 진흙탕에서만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번뇌 속에 있는 중생이아라 불법을 일으킬 수

있으며 번뇌가 곧 여래의 종자"라는 의미의 다름 아니다. 불타오르는 번뇌의 구덩이에 들어가야 보리를 이룰 수 있음을 이룬 것이며 번뇌와 보리가 따로따로 가 아닌 한 몸에 있음을 보인 것이다.

'무생(無生)', '불습(不瀟)'은 생이 없는, 혹은 습기 없는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완전히 끓여진 밥과 국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나라고 하는 각각의 개체가 살아지고 끓여져서 모두 몽게져 버려 한맛의 밥과 국으로 거듭남을 비유한 것이다. 그 둘이 하나가 된 맛이 바로 '선열미(禪悅味)'이다. 술은 번뇌의 불꽃에서 피워낸 깨달음의 맛을 나 자신만이 누리지 않는다. 술이라고 하는 한 물건이, 나라고하는 한 물건이 존재하는 이유를 스님은 재치 있게 다 보여줬다.



원법 스님(은문사 종장 · 조계종 교수아사리)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

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 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개 (10mm) 모주 1개 (12mm), 줄(실색), 코핀1개, 팬던트, 이부사계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핀 구멍이 막혀 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앞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 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로 통과시킵니다.
- 7 마강염주 줄을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 줄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팬던트와 마강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염주사이에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법계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회 힘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저서 손으로 가법계 눌러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56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